

충청지역 여학생운동을 집단적으로 고민하자!

보내는 기쁨 : 7기 전여대협(준)

받는 즐거움 : 충청총련 중앙집행간부

용도 : 충청지역 여학생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

1. 들어가며

충청여대협을 세우는 것과 함께 모든 일꾼들이 충청지역 여학생운동을 한번더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2. 충청지역 여학생운동의 전망을 내오는 데 있어 고민되는 점

1) 주체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

전여대협-지도사업간부,

충청총련-?,

충청지역 여학생운동가-?

2) 충청지역 건설준비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

▶ 지난 2년간 충청여대협 건준위에 대한 평가

성과-충청지역으로 여학생운동이 확산되는 큰 성과가 있었다.

-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건설해 들어가면서 전여대협과 지역여성운동의 발전을 도모하게 되었다.

한계-여학생운동을 했던 일군들이 여학생운동단위로 결의를 내는 과정이 미흡하였다.

- 여학생운동가로서 새로운 일군이 남는 과정이 미흡하였다.

▶ 올해 객관적 상황

총여건설상황-고대 서창 여학생회, 순천향대 총여학생회, 홍익대 여성인권신장특별위원회

여학생운동가의 존재 및 활동 - B&D.

=> 조직건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

여성국

3) 충청여대협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

▶ 전여대협의 지도방향-충청여대협 간부의 역할을 함께 해들어간다.

- 충청여대협에 대한 지도와 함께 대학별지도를 함께 병행한다.

- 한달에 한번정도 건준위 대표자회의를 함께 만들어간다.

▶ 충청총련의 지도방향-중집에서 지도를 함께 해들어간다.(?)

=> 핵심을 발굴하고 소조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방향

3. 이후 계획 수립

충청총련과 전여대협과 간담회

전여대협, 충청총련, 건준위대학과의 간담회

충청지역 여학생단위 주체회의

→ 핵심을 지정

. 건준위로 내용것인가

→ 대학, 상.

. 이후 계획을

→ 고대나경 경의 24일자까지.

→ 2월 말 주체회의

간담회 주제시작기. 개회일정.
2024.2.28.

충청지역 여학생운동을 집단적으로 고민하자!

보내는 기쁨 : 7기 전여대협(준)

받는 즐거움 : 충청총련 중앙집행간부

용도 : 충청지역 여학생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

1. 들어가며

충청여대협을 세우는 것보다 모든 일꾼들이 충청지역 여학생운동을 한번더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.

2. 충청지역 여학생운동의 전망을 내오는 데 있어 고민되는 점

1) 주체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

전여대협, 충청총련, 충청지역 여학생운동가

2) 충청지역 건설준비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

지난 2년간 충청여대협 건준위에 대한 평가-성과, 한계

올해 객관적 상황-총여건설, 여학생운동가의 활동

=> 조직건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

3) 충청지역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

전여대협의 지도방향

충청총련의 지도방향

=> 핵심을 발굴하고 소조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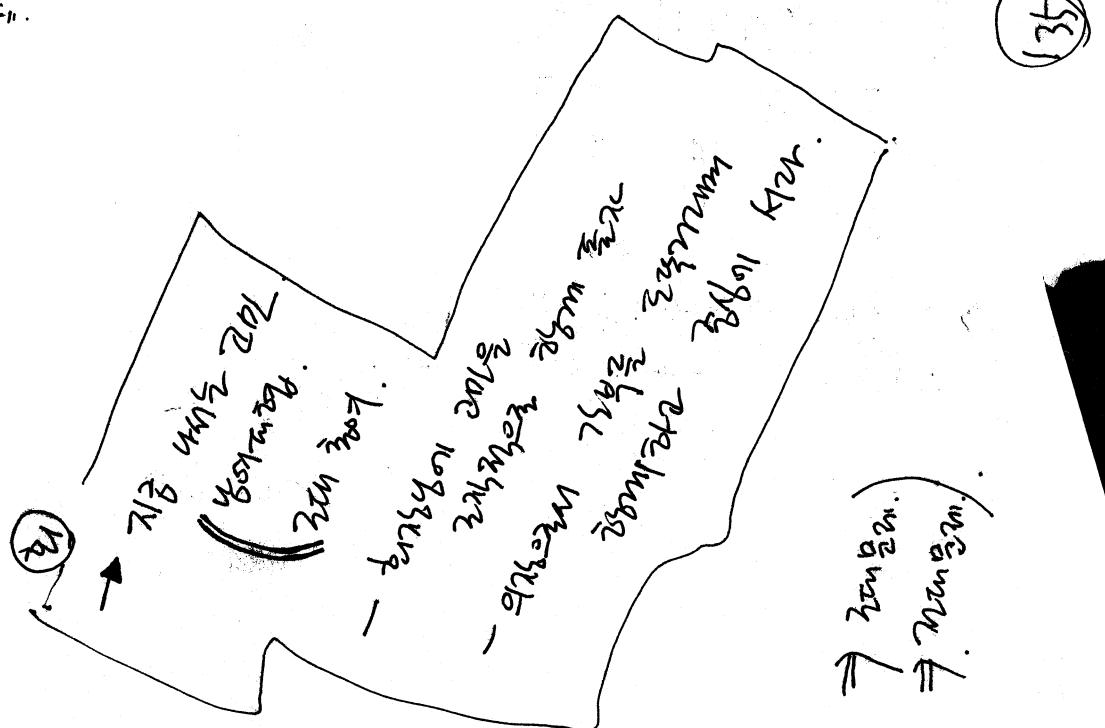
3. 이후 계획 수립

간담회

대학별 지도

건설준비 - 대남자회의 or 주체회의.

각각 종상.



여성민중·여성단체와의 광범한 연대연합을 실현할 데 대하여

현 시기 연대연합의 중요성

여성들 간의 연대연합의 중요성

현재 현황

연대사업에 있어 관점

노학연대에 대하여

그간 평가

정형

이후 방향

농학연대에 대하여

그간 평가

정형은

이후 활동방향

여성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에 대하여

투쟁사안사안별로 연대

-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한 연대체 구성

-6.15선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연대

통큰 연대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

더 큰덩어리 운동을 만들어가기 위한 상시적 공동투쟁체 건설이라든가

현재 이남사회의 여성운동의 현황에서 여성해방 실현을 위한 최상의 연대연합의 형태는 어떠한 것일지

연대사업의 관점

연대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

연대사업의 주체 마련

1:1:1:1 운동을 정형화해가자

일상적 연대를 실현하자

연대단위의 명확한 배치

